

여수산단 취업사기범, 9년 숨어있다 공소시효 12일 전 붙잡혀

여수산단 제조업체 근무하며 5명에 3억 7500만원 가로채 낚시 중 해양추락 사고로 위장한 후 잠적...검찰, 구속기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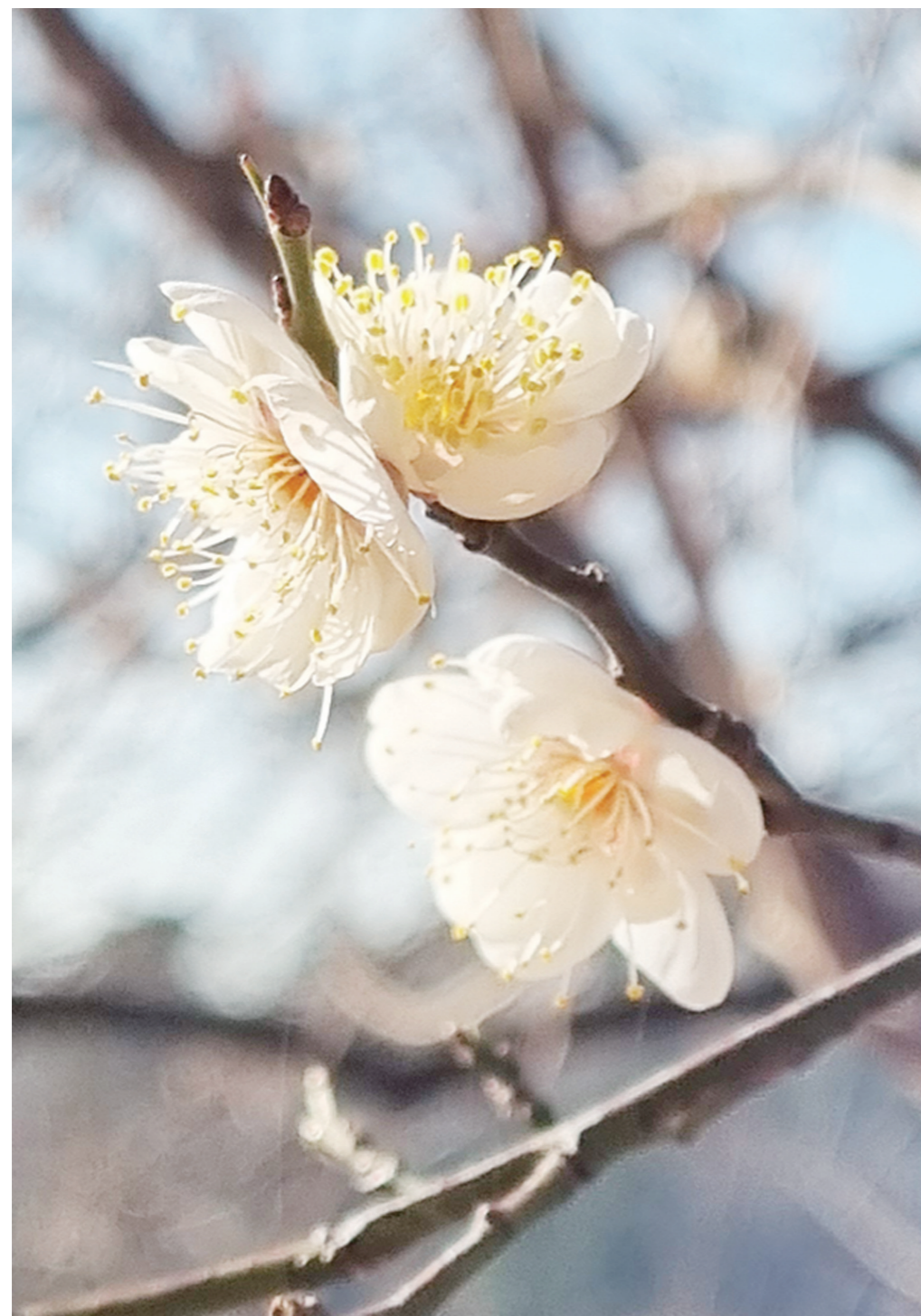
여수국가산단 대기업 취업을 미끼로 수 억 원을 받아 가로채 뒤 9년간 잠적한 지명 수배자가 검찰에 붙잡혀 구속·기소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제3부(부장검사 조은수)는 수억 원 취업 사기 후 사고사로

위장한 뒤 9년간 잠적한 A(46)씨를 붙잡아 재판에 넘겼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여수산단 내 화학 물질 제조업체에 근무하면서 지난 2008년 4월부터 2013년 1월 초까지 취업 알선료 내

지는 차용금 명목으로 협력업체 직원 5명에 게 3억 7500만원을 받아 가로채 혐의다. A씨는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사기죄로 고 소당할 상황을 피하기 위해 2013년 9월 초 여수시 화양면 선착장에서 낚시 중인 것처

럼 꾸민 다음 타고 온 렌터카를 바다에 밀어 빠뜨리고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사기 사건 기소종지 이후 A씨에 대한 추적을 계속했다. 검찰은 지난해 말 공소시효 임박 사건 정 기 점검 과정에서 A씨의 병원 방문 내역 및 연 락처 등을 찾아내 검거했다. 2개월간 각종 사실 조회 자료, 통화내역,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분석해 A씨가 숨 었던 은신처를 파악했으며 공소시효 완성

12일 전 체포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은신처 등에서 다수 계좌를 확보 했으며, 상습적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규명 했다. 순천지청 관계자는 "기소종지자 소재 파 악에 주력하여 국가 형법권 실현토록 노력 하고, 범죄 실제 규명해 피해자들의 권리구 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여수=김현근기자



꽃망울 터뜨린 매화 포근한 날씨를 선보인 11일 오전 울산 남구 선암호수공원일원에 매화가 꽃 망울을 터뜨리고 있다.

‘갭 투자’ 전세 보증금 사기 부동산업체 직원 2명 영장

‘무자본 매입’ 주택에 전세 내 보증금 480억 때먹은 악성임대인과 공모

전세를 끼고 부동산을 매입하는 이른바 ‘갭(Gap) 투자’로 전세 보증금 수백여억 원을 가로채 구속 송치된 50대와 모의한 부동산 업체 직원 2명이 추가 검거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부동산 컨설팅업체 임직원 30대 남성 A씨 등 2명 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매매 가를 웃도는 임차보증금으로 주택을 사들이는 ‘갭 투자’ 방식으로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 정모(51)씨를 도와 허위 매매를 꾸며 전세 피해자 를 양산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정씨가 이른바 전세 보 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압류 직전인 신축 빌라 의 매매가를 한 번 더 높은 ‘업(UP) 계약서’를 꾸며 명의를 허위 이전, 또 다른 전세 임차인 을 들어 보증금만 때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일당은 올린 매매가로 ‘가짜 매수인’(바 지 사장)과 허위 매매를 꾸민 뒤 다시 한 번 다 른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받은 전세 보 증금을 추가로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일당은 정씨와 짜고 추가로 받은 전세 보증금을 나눠 갹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정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임대차 수요가 많은 중저가형 신축 빌라 400 여 채를 사들인 뒤 이 중 208채의 전세 임차인 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 480억여 원을 반환 하지 않고 가로채 혐의를 지난해 11월 구속,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다른 임대차 계약 만기가 도래하면 피해는 더 불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씨가 범행을 주도한 이른바 ‘갭 투자’는 매 매가와 전세값 차이가 적은 부동산에 대해 전 세를 끼고 매입하는 투자방식이다. 해당 임차 인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대위 변제’ 방식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았다. 그러나 임차인 대신 보증을 선 공사 측이 파 해를 떠안았다. 특히 최근 주택시장 침체로 전 세값이 매매 시세보다 비싼 ‘역전 현상’이 발생 하면서 경매를 통한 처분도 여의치 않자 주택 도시보증공사는 정씨를 지난해 6월 고발했다. 경찰은 최근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임차보 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급

증하고, 사회적 경험이 적은 청년·신혼부부 등 이 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강 조했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의 2030 청년 대상 대위변제액은 전체 규모의 6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위변제액도 지난 2021년 5040억 원에서 지난해(1~9월) 5292억 원으로 해마다 급증, 귀중한 현금이 낭비됐다고 경찰 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가 무자본·갹투자로 사 들어 보증금을 때먹은 ‘갹통 전세’ 주택이 압류 되기 전 A씨 일당이 허위 매매 계약으로 ‘바지 사장’적인 소유주를 내세워 또 다른 전세 임차 인을 끌어들이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세 임차인 모집에 가담한 공인 중개사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간다. 앞으로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전세 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씨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계한 악성 임대인 명단 에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 254 건 계약에서 세입자들에게 보증금 600억 원 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93 건·646억 원을 때먹은 박모씨에 이어 2번째로 많은 규모로 집계됐다. 김재환기자

주차 차량 유리창 부수고 금품 훔친 상습 절도범 검거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부수고 금품을 훔 쳐 달아난 50대 상습 절도범이 경찰에 현행범 으로 체포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11일 주차 차량에 침입 해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로 A(54)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9일부터 이틀 동안 광주 동구 소재 대학병원 주차장을 돌며 총 4대의 차량

에 침입해 300여 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 아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고가의 외 제 차량들만 노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 로 드러났다. A씨는 공구를 이용해 운전석을 열다 실패할 경우 돌방이를 이용해 앞 유리창을 부수고 침 입했다. 과거 동중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A씨

는 누범 기간에 생활고를 이유로 범행한 것으 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차량에서 훔친 카드를 사용한 내역을 확인하고 추적에 나서 이날 오전 0시 계 동구 한 술집에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최이슬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